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2016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이사장 인사말	여는글	01
아름다운재단	비전과 미션	02
	목적과 활동	03
	사업가치 H.O.P.E	04
	함께하는 사람들	05
2016 아름다운재단	한눈에 보는 2016 아름다운재단	06
기금 조성	공익 재단법인 본연의 역할을 위한 모금	08
	주요 캠페인	10
	특별한 1%나눔	13
	2016 새 기금	14
	10주년 기금	15
목적사업	아름다운 배분은 계속됩니다_배분위원장 박경태	16
	연구도 모금이며, 기부문화 운동이다_기부문화연구소장 박성연	
	주요 지원사업	18
	2016 지원사업	22
재정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	24
미래 비전	2017 기금 및 지원 영역 개편	26
	감사서신	28

발행일 2017년 4월 20일
전화 02.766.1004

발행인 박중문
팩스 02.6969.5196

기획·편집 아름다운재단 홍보팀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주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디자인·인쇄 디자인생선가게(02.3673.2220)

2016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는 권당 1,448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님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으로 희망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이사장 박종문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이 2016년에 거둔 결실을 보고 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시민들의 나눔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홀로 사는 어르신, 소년 소녀가정, 이혼동이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가게'는 지원을 넘어 자립의 토대를 만드는 사업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2016년에는 300호점을 개업해 2004년 1호점 이후 12년만에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장학·사회참여·여행활동 등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경험과 배움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대안적 변화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기부문화 연구·교육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 기부지수를 개발·발표 하며 기부문화연구를 이끌어온 '기빙코리아'는 조사방식 수정, 신뢰도 검증, 국내 최초 모금전문가 인식 조사 도입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기존 사업에 더하여 2016년에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과 연계해 월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마음 놓고 병원에 다닐 수 없는 100만 가구의 아픈 현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라는 이유로 보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끌어안는 손길이었습니다.

2016년은 시민과 사회의 연대 속에서 아름다운재단이 나아갈 바를 자문하는 한 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곁으로, 변화가 필요한 곳을 찾아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재단의 소명임을 되새깁니다.

기부자님들의 소중한 나눔, 많은 분의 믿음과 지지는 아름다운재단의 버팀목입니다. 2017년에도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비전과 미션

비전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실천 행동 비전으로 '나눔의 생활화'를 함께 추구합니다.

미션

시민공익활동을 키워가는 창의적 서포트재단

아름다운재단은 변화를 위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속적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체로서 다음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공익활동의 지속가능 모델 인큐베이팅

전통적 자선활동을 넘어,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모델 개발을 추구합니다. 협력과 연대를 전제로 비전을 함께 실현할 단체를 발굴합니다. 더 나아가 단체의 설립과 사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행동하는 시민기부문화의 확산자

나눔의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기부자·지원자), 기업, 단체, 정부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올바른 나눔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핵심가치를 지향합니다.

투명성

우리는 엄격한 법, 도덕적 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사용합니다. 사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공익성

우리는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익은 측정 가능한 변화와 사회적 충격을 통해 확인합니다.

상호존중

우리는 협력 가능한 단체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상호존중의 가치와 열린 자세로 협력합니다.

목적과 활동

목적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합니다.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사업 전개
2.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3.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4.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5.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
6.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사업 전개
7. 이주아동의 보육시설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익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부동산 무상 대여
8.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업가치 H.O.P.E

아름다운재단의 미래 사회 비전인 '함께 사는 사회'는 만인 평등권의 토대 위에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음으로써 실현됩니다.

H

행복 Happiness

의·식·주의 보장은 삶의 기본입니다. 이를 행복의 기본 조건으로 규정하고 지원합니다.

O

기회 Opportunity

개인과 협력단체들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P

평화 Peace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E

평등 Equality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처한 다른 조건을 인정하며 사회구조 탓에 생겨나는 결과적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우리는 사업가치 H.O.P.E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유지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모든 사업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단이 추구하는 변화는 측정 가능하고 적절한 지표를 설정합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비전·미션·핵심가치에 근거해 결정합니다.

사회적 충격

모든 사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개발·수행하며 사회적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과 연대

시민사회 분야에서 우수한 단체들과 협력·연대합니다. 단체의 설립과 자립을 지원하여 협력과 연대를 확장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아름다운재단에는 학계, 재계, 금융, 홍보, 의료, 법조, 회계, NP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이사 및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한 나눔을 실천해나가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는 2016 아름다운재단

March 03

- 상반기 지원사업 진행
- 주거지원
(집에 가고싶다 캠페인)
소책자 제작·배포
-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현황 및 정책연구 진행



February 02

-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 공모
(연 3회/2,5,8월)



January 01

-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규 지원
-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놀이터' 개장
- 기부문화총서 9 「즐거운 모금, 행복한 기부」 출간
- 특강 '돈에서 관계로, 즐거운 모금의 원리와 사례' 개최
- 나눔교육 '반디' 3기 운영



June 06

- 기부문화총서 10 「비영리를 위한 아웃컴 핸드북」 출간
- 나눔교육 해외연수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열기캠프
-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April 04

- '사이로직사회연대기금' 개설
- 새내기 기부자님과의 만남 '처음자리마음자리' 개최(연 3회/4.9,12월)
- 온라인 강연 '비영리모금 저자와의 만남' 개최(연 4회/4.5,6,7월)
- 기부문화연구 석박사논문 지원사업 공모(연 2회/4,9월)

May 05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신규 지원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 신규 지원
- 뽀로로파크와 함께하는 <돌기념 기부 나눔캠페인> 개최



August 08

- 이룬동이 인식개선 캠페인 '힘내라이룬동이' 진행
- 나눔교육 '반디' 4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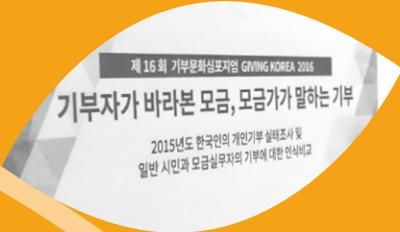


September 09

- 하반기 지원사업 진행
- 나눔교육 해외연수 보고회

July 07

- 건강영역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전개
- 미국 재단협의회(COF) 해외회원 자격 취득
- 제2회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개최
- 특강 '비영리 기관을 위한 아웃컴 프레임워크' 개최
- 희망가게 '희망경영학교' 진행
- 기부자님과의 나눔 인터뷰 '찾아가는 서비스' 진행(연 2회/7,10월)



November 11

- 제16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6 '기부자가 바라본 모금, 모금가가 말하는 기부'
- 63컨벤션센터와 함께하는 <결혼기념 기부 캠페인> 전개
- 'Beautiful Friends(뷰티풀 프렌즈)의 밤' 개최



October 10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달기캠프



December 12

- '송혜교기금' 개설
- '희망가게' 300호점 개업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2016 다솜이희망산타' 진행
- 2016 기획연구발표 '모금 규제와 기부 활성화, 한국 기부문화의 얼굴'



기금 조성

공익 재단법인 본연의 역할을 위한 모금

우리나라의 기부 관련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기부금의 감소, 정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 탓도 있겠지만, 2016년은 탄핵 국면에서 특정 재단의 모금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연말 기부 활동에 미친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익 재단법인의 모금,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적극 동의하나, 자칫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기부문화 전반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공익 재단법인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6년 아름다운재단은 중장기 비전에 따른 내부 정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중 건강 영역에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000여 명이 정기기부회원으로 동참해 주셨고, 유명인사를 비롯해 기업인들도 '아름다운재단다운' 캠페인이라는 격려와 함께 기부에 참여 해주셨습니다.

2016년 기부금 총액은 68억 2천 8백여만 원, 기부회원 참여 16,474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정치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에 쏠려 공익 재단법인의 모금 활동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름다운재단의 건강영역 캠페인 및 기금 조성에 보여준 많은 시민의 관심은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다변화 사회의 새로운 사각지대 발굴과 발 빠른 대응 그리고 이를 대중에 알리고 공감과 참여를 호소하는 아름다운재단의 활동은 시민들의 일상적, 미시적 변화로부터 강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속적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체로서, 작고 꾸준하며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익 재단법인 본연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투명성과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더욱 많은 요구와 공감으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

정기기부회원
1,078명

일시기부
63건

일시기부금
108,475,182원

* 2017년 1월 포함

아름다운Day

생애주기기부
372건

기부금
90,805,74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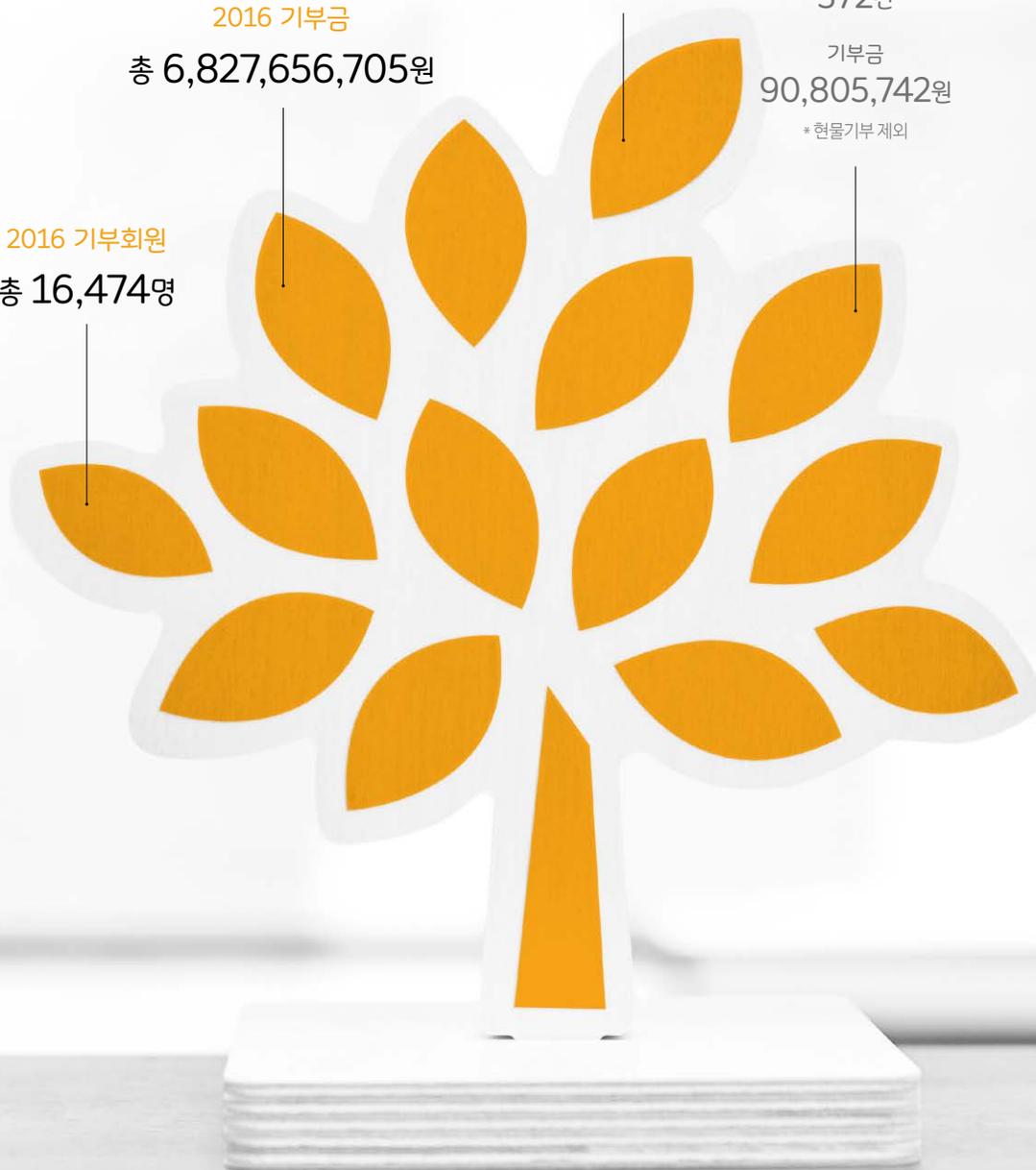
* 현물기부 제외

2016 기부금

총 6,827,656,705원

2016 기부회원

총 16,474명



주요 캠페인

건강영역 캠페인 <60일의 건강보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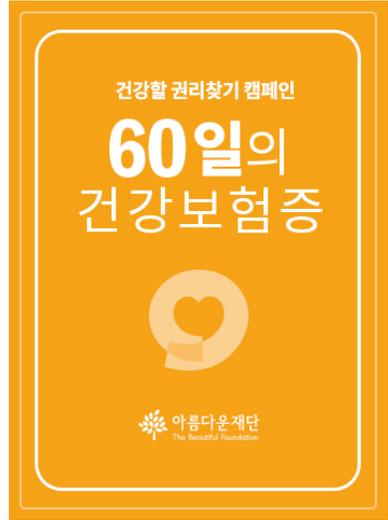
- 기간: 2016.07.18 ~ 2017.01.31
- 정기기부회원: 1,078명
- 일시기부: 63건 / 기부금: 108,475,182원
- 파트너기관: 한겨레21,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빌리은행

매달 5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어 치료마저 포기하는 생계형 체납가구가 100만에 달합니다.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등 체납자와 가족의 경제 활동까지 제한하는 독촉이 이어집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그 가족의 긴급 의료 지원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건강'이라는 기본권마저 제한되는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빌리은행이 힘을 보태주었고, 한겨레21 공동기획보도 <건강은 압류할 수 없다>를 통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된 약 7개월 동안 1,078명이 정기기부로 꾸준한 응원을 약속해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시기부도 이어져 1억 8백여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습니다.

건강영역기금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통해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1회의 지원으로 체납자들은 최소 60일동안 일시적으로나마 보험 혜택을 받아 병원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산처분 운동,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영역 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겨레21-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보도 <건강은 압류할 수 없다>

99.4%의 건강보험료 징수율. 그 이면에 가려진 생계형 체납자들의 아픈 일상. 한겨레21과 아름다운재단은 7월부터 총 4회에 걸쳐 공동기획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채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티는 이에게 체납액 3만 원의 무게, 사업 실패로 인한 빚에 더해진 건강보험료 독촉,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느라 보험료 체납은 알아채지도 못하거나 이미 통장이 차압된 청년들. 빈곤과 질병이 악순환되는 현실이 고스란히 실렸습니다. 그 중 10살 영희(가명)의 사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부모의 학대로 아동보호 시설에서 지내는 영희는 부모와 분리돼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독촉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까지 지워지는 체납액 징수의 가혹함은 많은 시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와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겨레21이 다음 스토리펀딩을 통해 진행한 모금캠페인에도 430건의 기부참여가 이어져 총 3백 5십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의료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건강보험 체납했다라도
너무 손쉽게 동장 압류, 차압류 등
조치하지 말아주세요.

@한겨레21

주거지원 캠페인 <집에 가고싶다>

•기간 : 2015.11.01 ~ 2016.05.31

•소책자 e-Book 열람 : 383건

•소책자 오프라인 배포 : 총 59,000부

(인터파크도서 50,000부 / 일반 신청자 584명, 8,000여부 / 전국 독립출판서점 23곳 전시 협조)



<집에 가고싶다 캠페인>은 우리 모두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권리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해지는 주거 불평등 문제를 이슈화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공론화했습니다.

캠페인 취지에 공감한 특별한 분들의 응원과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스타 셰프 이연복 님은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주거 문제를 담은 영상 제작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일시적 노숙, 친구 집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며

더 많은 시민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가고 싶은 집 만들기' 영상 제작에 함께해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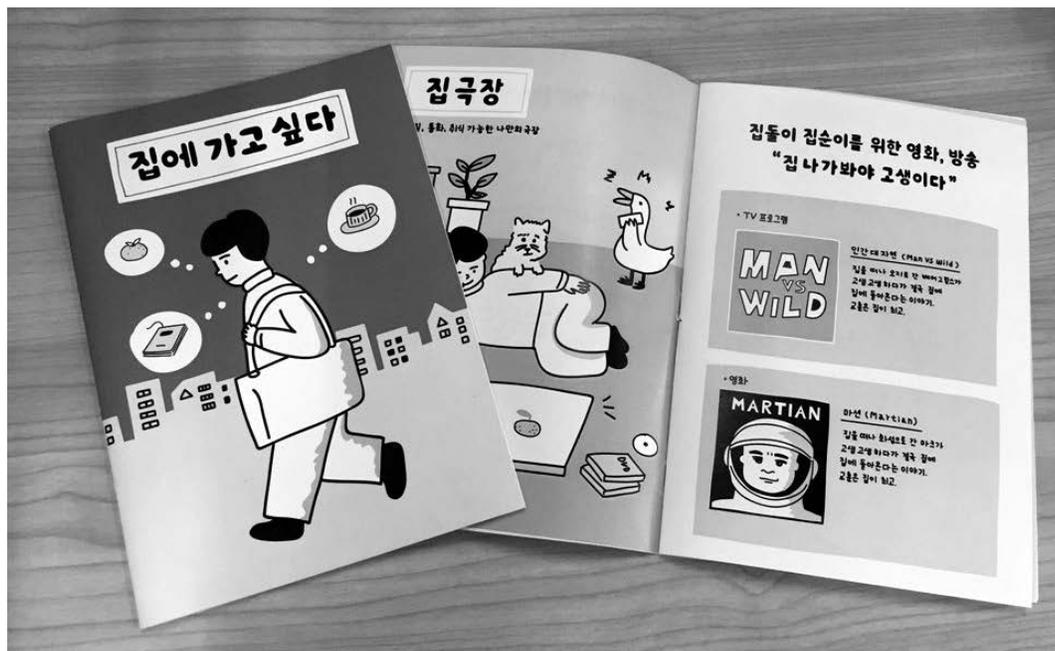
김영만 선생님은 집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각자의 일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청춘들을

위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584명의 시민과 전국 독립출판서점 23곳이 <집에 가고싶다> 소책자 배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집'

이라는 공간에서 발견하는 일상의 재미와 소소한 행복을 일러스트레이터 임진아 작가님의 따뜻한 그림으로 담아낸 소책자

59,000부가 시민들에게 전해져 집의 의미와 우리 이웃의 주거 문제를 공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생애주기기부 <아름다운Day>

- 기간: 2016.01.01 ~ 2016.12.31
- 생애주기기부: 372건
- 기부금: 90,805,742원 *현물기부제외

생애주기기부 <아름다운Day>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나눔으로 더 의미 있게 기념하는 기념일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11월 아름다운재단이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생애주기나눔'을 개편해 다양한 생애 기념일에 맞춰 기부할 수 있는 <아름다운Day>로 새 단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이전 해보다 두 배가 넘는 372건의 참여로 9천여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습니다. 자녀가 나눔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태명, 탄생·백일, 돌기념 기부가 21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돌기념 기부는 140건으로 아이코닉스의 '보로로' 캐릭터 재능기부와 스타벅스의 제작비 전액기부로 제작된 나눔동화의 인기가 큰 몫을 했습니다. 30쌍의 부부는 새로운 삶의 시작과 그 약속을 기념하며 결혼기념 기부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유명 캘리그래퍼 강병인님의 '나만의 가훈액자'는 그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생일기념 기부도 82건이 진행돼 특별한 날을 나눔으로 기념하는 <아름다운Day>의 의미가 더욱 빛났습니다.

2016년에는 다양한 곳에서 <아름다운Day>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5~6월 보로로파크 잠실롯데월드점과 함께 진행한 <돌기념 기부 나눔캠페인>에는 1,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행사장에 '보로로 나눔동화책' 대형 모형을 전시하고, 보로로파크를 방문한 아이들에게 기념사진을 찍어 선물했습니다. 아이에게 나눔을 선물하는 '보로로 나눔동화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나눔 돌잔치, 나눔 돌상 등의 기부 방법과 다양한 기념일 기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일상 속 나눔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한 1%나눔

인세기부 ‘나눔의책’

아름다운재단에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주제별 다양한 1%나눔이 있습니다. 2001년 시작된 ‘나눔의책’은 작가와 출판사, 독자들이 함께하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작가는 인세의 일부를, 출판사들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독자들은 기부의 뜻을 담은 책을 구매해 나눔의 선순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나눔의책’을 소개합니다.

「벌거벗은 광고인」

2016년 2월, 광고와 광고인, 광고회사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벌거벗은 광고인」의 인세기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접 재단에 방문한 이구익 작가님은 지난 2013년 「인터랙티브 광고 제작법」에 이어 나눔의 책장에 두 번째 책을 채워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표류하다 2」

치킨 삶을 위로 하는 시. 흥국생명 영업부에서 22년째 일하고 계신 오완섭 작가님은 일상 속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담아 시집 「빛과 어둠을 표류하다 2」를 펴냈습니다. 오완섭 작가님은 오른쪽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장애를 결핍이 아닌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를 바라며 장애아동을 위한 기부를 실천하셨습니다.

「여행 잘하는 사람으로 크다면」

류한경 작가님은 두 아이와 함께한 뉴질랜드 여행의 다양한 이야기와 교육 철학을 담은 「여행 잘하는 사람으로 크다면」을 펴내며 인세를 기부하셨습니다. 4년 전, 작가님의 자녀가 아름다운재단의 나눔교육에 참여하며 시작된 인연이 소중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

서울과 모스크바, 류블랴나에서 아빠와 딸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엮은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 강병용 작가님은 2005년 첫 책의 인세기부를 시작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책을 출판할 때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My Dream Diary Book」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백수연 작가님은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와 기회가 없는 청소년과 청춘을 위해 「My Dream Diary Book」을 출간했습니다. 백수연 작가님은 이 책이 청소년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수익금을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실리콘밸리 견문록」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며 그 경험을 담아 「실리콘밸리 견문록」을 출간한 이동휘 작가님은 출판사 제이펍을 통해 ‘나눔의책’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설립부터 이어 온 꾸준한 나눔과 작가·역자들의 동참에 크게 공감해 책의 인세 전액과 개인 강연료를 기부해주셨습니다. 배움은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그 기회는 더 큰 기회로 이어진다고 믿는 작가님은 교육비 지원사업에 기부를 실천하셨습니다.

출판사 제이펍의 ‘나눔의책’

출판사 제이펍의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1%기부 조항이 그것. 지금까지 작가, 역자 100여 분 모두 흔쾌히 함께해주셨고, 또 다른 나눔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이펍 역시 출판하는 모든 책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판사 자금 조성도 계획하고 있는 제이펍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2016 새 기금



사이로직사회연대기금

- 조성일 : 2016. 04
- 조성자 : (주)사이로직
- 출연금 : 10,000,000원 (누적기부액 8,700만 원)
- 분류 : 기업기금
- 지원영역 : 사회참여와 통합사회영역

(주)사이로직은 '기술로 사회 기여를 꿈꾸는' 건강한 엔지니어들이 모여 신호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측정·진단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2008년 창립 이래 매출 1%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사이로직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나눔도 키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한 '사이로직사회연대기금'은 시민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지역풀뿌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송혜교기금

- 조성일 : 2016. 12
- 조성자 : 송혜교
- 분류 : 개인기금
- 지원영역 : 교육영역 -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디자인 전문가를 꿈꾸는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2016년 12월, 배우 송혜교님은 주얼리 업체의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배상금 전액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송혜교님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힘은 문화이다"며 "기부금이 예비 신진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창작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부금은 아름다운재단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중 디자인 전문가를 꿈꾸는 저소득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10주년 기금

아름다운재단의 기금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나눔의 씨앗이 되어 왔습니다. 그 씨앗이 아름다리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온 기업과 기부자님을 소개합니다.

기업	3M기금 한국쓰리엠	한국쓰리엠은 임직원의 월급공제 기부와 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3M기금'을 조성, 장애아동·청소년들의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쓰리엠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은 행복을 나누는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사이버다임작은시작기금 (주)사이버다임	기업의 전자 문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IT 소프트웨어 기업인 (주)사이버다임은 2007년 '작은 시작'이라는 사내 기부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임직원들의 기부와 회사의 매칭 기부를 통해 소년소녀가정의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개인	막무가내대장부기금 두레학교	경기도 구리 두레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은 매년 지리산 나눔 종주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꾸준히 전달해왔습니다. 두레학교 학생들이 모은 기부금은 또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여흥 활동 지원에 쓰이며 따뜻한 나눔 교육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름다운도보여행기금 손성일	'아름다운도보여행기금'은 '아름다운도보여행'이라는 이름의 2만 2천여 명의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이 참가비와 1km당 일정금액을 적립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온 커뮤니티 기금입니다. 기금은 소외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의 여흥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채원의같이나눔기금 이채원	이채원 기부자님은 2007년 「이채원의 가치투자」를 발간하며 인세를 출연금으로 10년 나눔을 약속하셨습니다. 10년의 약속은 '같이(가치)나눔'이라는 이름처럼 가치투자를 통한 기금운용으로 더 커져, 오는 2018년 사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원당100년생각기금 윤영석	춘원당한방병원원 윤영석 원장님의 선대께서 1847년 문을 연 이래 7대에 걸쳐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원당100년생각기금'은 춘원당의 역사와 함께한 나눔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기금입니다. 윤영석 기부자님은 매달 기부를 통해 "오랜 가업으로 형성된 부는 마땅히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티택스함께나눔기금 윤경구	2007년 윤경구 기부자님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을 아름다운재단의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실원들과 함께한 연구 결과로 받은 것이기에 나눔을 선택하셨고, 기부자님의 마음에 공감한 동료들도 정기기부로 10년을 한결같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기금은 실직가정 대학생의 등록금,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교복을 지원합니다.
풀뿌리의힘기금 故 윤홍	"혼자 쓰는 것은 혼자만의 즐거움이지만, 남을 돕는 것은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도 몇십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故 윤홍 기부자님의 나눔은 '풀뿌리의힘기금'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대안을 찾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 것에서 시작해 어머니의 장례 조의금과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을 기부하며 조성한 '어머니의손길기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암투병 끝에 2017년 2월 작고하신 기부자님의 나눔의 가치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목적사업

아름다운 배분은 계속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2016년에 이뤄진 수많은 사업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많은 개인과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더해 의미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진행했던 사업을 개선한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파면·해임·해고 등으로 본인소득이 상실된 공익제보자를 발굴하여 생계비, 심리진단 및 상담치료,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은 단순한 체납보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탕감운동을 통한 체납자 문제를 사회 이슈화했습니다. 체납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권리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현황 및 정책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후속 모니터링 사업은 한 해 전에 설치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평가하여 앞으로 더 나은, 더 많은 놀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960명, 352단체가 아름다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의 지원사업도 아름다운 배분의 지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분위원회는 더 나은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분위원장 박 경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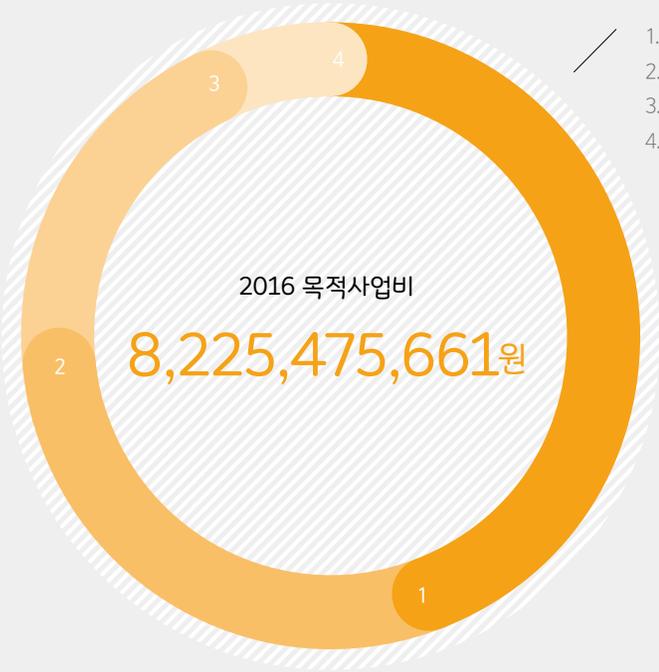
연구도 모금이며, 기부문화 운동이다

'연구도 모금이며, 기부문화 운동이다.' 2004년 설립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창립 슬로건입니다.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국내 최초로 연구를 시작한 '기빙코리아'의 기부지수는 이제 통계청의 사회조사 항목으로 반영되어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자료로 자리 잡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시민과 모금기관, 정책입안자가 궁금해하지만 국가 제공의 통계가 보여주지 못하는 항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시민과 모금실무자의 모금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기부자와 일반시민의 인식과 태도에 기반해 합리적인 모금제안과 계획을 설계하는 비영리단체에 시사점을 주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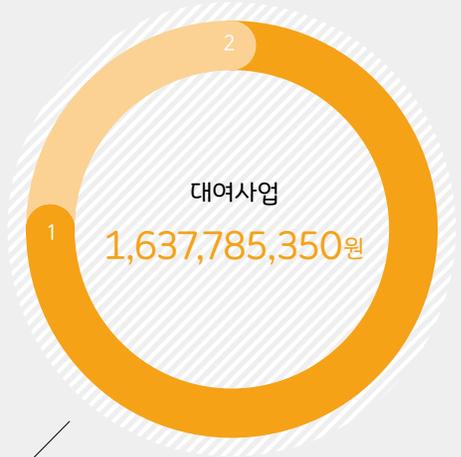
기획연구에서는 모금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인 온라인 모금 현황을 분석하고, 오랫동안 모금단체에서 다뤄진 이슈인 기부금품법의 역사를 정리해 이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에는 아시아 16개 나라와 손을 잡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부문화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문화연구소장 박 성 연



- 1. 사회적약자 지원 3,636,792,618원
- 2. 아동청소년 지원 2,416,057,735원
- 3. 공익활동 지원 1,591,909,643원
- 4. 기부문화 확산 580,715,665원



- 1. 한부모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 1,230,941,430원
- 2. 이주아동 보육시설 공간 무상임대 406,843,920원

- 1. 사회적약자 지원 3,010명
- 2. 아동청소년 지원 2,899명
- 3.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 33명
- 4. 공익활동 지원 18명



- 1. 아동청소년 지원 134단체
- 2. 사회적약자 지원 123단체
- 3. 공익활동 지원 94단체
- 4. 이주아동 보육시설 공간 무상임대 1단체



주요 지원사업

공익활동 지원

우리 사회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을 키워가는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2016년 10개 사업을 통해 94개 단체 18명을 지원했습니다.

국제연대, 지역·시민 차치, 소수자 운동, 문화·환경·대안 등 다양한 영역의 공익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시급한 프로젝트는 물론 단체의 중장기 비전에 따른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짧게는 3개월 이내, 길게는 3년까지 지원을

이어갑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B 사업을 통해 총 27개 단체가 환경 분쟁의 해결방안 가이드 제작, 에너지 전환운동, 1인 가구 여성 분석 및 복지시스템 제언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단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매달 선정하고 지원하는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를 통해 37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기자재, 활동가 재충전 및 연수, 네트워크 등 공익단체의 인프라 지원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총 16팀의 활동가가 선정되어 해외연수 및 휴식을 가졌습니다. 이밖에도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진행을 위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특별지원도 진행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01.01 ~ 2016.12.31
- 지원금액 : 234,864,370원
- 지원단체 : 3년차 - 지리산 이음 / 2년차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땀동
1년차 - 넥스트젠 / 신규 -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아름다운재단은 새로운 공익단체의 설립과 초기 활동 지원으로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매년 4월 공모를 통해 1개 단체를 선정하고 최대 3년간 2억 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에는 4개 단체를 연속/신규 지원했습니다. 지리산권 커뮤니티 형성과 대안적 삶을 모색하며 다양한 사업을 펼친 지리산 이음은 3년의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기반을 갖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편, '시골살이학교', '지리산 이음 포럼' 등 기반사업 정착화에 주력했습니다.

2년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땀동은 국내 유일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단체로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더 가까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만나기'를 목표로 거리 이동상담을 진행,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진행한 '땀동포차'에는 1년 동안 181명의 청소년이 방문했습니다. 이밖에도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 환경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해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차 넥스트젠은 청년생태마을 네트워크 운동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청년 교육 콘텐츠 개발·기획 등 단체 기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신규 선정된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은 향후 3년 동안 진행할 사업의 전체 계획을 다듬고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들이 현실의 부족함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13개 사업을 진행하여 134개 단체 2,899명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500명에게 동·하절기 교복 1,000벌을 지원했습니다. 교육비 지원으로 고등학생 97명, 대학생 51명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각각 50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체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에는 15개 단체 115명, 사회 문화활동에는 10개 단체 183명이 참여해 돌봄, 인권, 나눔, 미디어, 문화 등 사회적 이슈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5년에 이어 사각지대 청소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캠퍼카 이동상담소를 운영하는 한빛청소년재단 센터와 거리청소년 의료서비스 및 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의정부시이동형센터 포텐을 지원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진행하던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은 전주, 완주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01.01 ~ 2016.12.31
- 지원금액 : 400,996,700원
- 협력단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지난 2013년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은 자립정착금 실태를 우리 사회에 알린 계기였습니다. 당시 진행한 조사에서 정부의 자립정착금보다 높은 주거비 지출로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종결아동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의 주거지원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령·입소대상·출신·지역 등에 따른 신청 제한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만18~28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종결(예정) 아동의 주거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10명에게 주거비 4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했습니다.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함께 주거관리 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한 재무 기초 교육 및 상담 등 자립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했습니다. 반찬두레 활동 등 모임을 구성해 고민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주거권 실태조사와 연구보고서 발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환경과 주거실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지원

2016년에도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24개 사업을 추진, 123단체 3,010명을 지원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155개 소년소녀가정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107분에게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건강검진 및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장 197명의 건강과 안정적 자립을 도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지역주민을 돕고, 기록을 수집·보관하기 위한 (기억0416 캠페인)으로 416기억 저장소, 치유공간이웃, 안산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등에 3년째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는 31개점을 개업했습니다(2016년 지출기준 33개점). 심리정서, 법률 지원 등을 비롯해 2016년에는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숨이작은숨결살리기'는 37주/2.5kg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 376명의 입원과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이른둥이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매달 5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 체납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해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도 없이 지켜져야 할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01.01 ~ 2016.12.31
- 지원금액 : 289,664,813 원 * 특별사업 공간 무상대여 406,843,920원
- 협력단체 : 특별사업-아시아의 창 / 연구사업-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년 1월 '아시아의 창 어린이집'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182㎡(55평) 규모로 조성된 어린이집은 지역 내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사회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주 노동자 부모들은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들은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거절당하거나 차별과 학대를 겪기도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2015년부터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소는 그 일환으로, 운영을 맡은 '아시아의 창'에 2016년부터 3년간 공간 무상임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설이 지원됩니다. 오는 2018년까지 미등록 이주아동 어린이집 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3~8월 진행된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현황 및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다각도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공모사업을 통해 선발된 서울·경기 지역 내 미등록 이주아동 어린이집 3곳에도 총 1억 800만 원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국내 최초 기부지수를 개발·발표하며 한국 사회 기부문화를 이끌어온 '기빙코리아'는 16회를 맞아 조사방식 수정, 신뢰도 검증, 국내 최초 모금전문가 인식 조사 도입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더불어 기부금품법 모집제도, 온라인 모금캠페인, 기부 관련 변화양상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연구와 총 6건의 석·박사 논문 지원 등 연구 활동 지원도 활발했습니다.

기부문화총서 9권 「즐거움 모금, 행복한 기부」, 10권 「비영리를 위한 아웃컴 핸드북」 발간을 비롯해 네트워크 모금, 비영리 아웃컴, 비영리 모금 저자와 만남 등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나눔교육 '반디'는 2016년에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에 전국 15개 파트너 193명의 청소년이 참여했고, 학교 프로그램에 7개 학교 444명의 학생이 함께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청소년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6월 나눔교육 해외연수에는 아름다운재단의 나눔교육 교사이자 기획자인 반디 선생님과 재단 담당자 11인이 참여해 미국 그랜드래피즈, 인디애나 폴리스 지역의 9개 기관을 방문하며 다양한 나눔교육 사례를 접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개발, 활동가 정체성 확립 등 질적 성장을 위한 해답을 모색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영리 모금 저자와의 만남’ 온라인 강연

2016년 새롭게 시작한 ‘비영리 모금 저자와의 만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원격강의 시스템과 통역 지원으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스타 비영리저자로부터 최신의 이론과 경험을 배우고, 한국 전문가 패널과 함께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부터 진행된 총 4회의 강연에는 346명의 비영리단체 활동가와 학생, 시민이 참여해 그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첫회는 ‘풀뿌리단체의 모금 노하우’를 주제로 세계적인 비영리 모금 트레이너인 김 클라인(Kim Klein)이 풀뿌리 단체에 맞는 모금 노하우와 기부자 관계 지속 및 성장, 다채널·온라인 모금 등 최신 트렌드를 강연했습니다. 2회는 케이 스프링클 그레이스(Kay Sprinkel Grace)의 ‘사회 변화를 만드는 모금’이었습니다. 거액기부자 이해와 관계 맺기의 기본, 거액 모금을 위한 기관의 리더십 그룹·이사회·직원의 역할과 실무적 팁 등을 공유했습니다.

3회 강연자 사라 더럼(Sarah Durham)은 ‘브랜드레이징, 비영리단체의 브랜드마케팅 노하우’를 주제로 소규모 비영리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브랜드를 강화하는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마지막

으로 ‘비영리 모금의 기본, 이사회 모금과 거액 모금’을 주제로 줄리아 워커(Julia I. Walker)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소액 대중모금 중심의 한국 비영리단체와 달리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로 운영을 안정화하고, 거액 모금 프로그램과 장기적 모금 계획을 세우는 성공적인 비영리 사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2016 지원사업

공익활동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개인	단체	지원금액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신생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4	234,864,370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공익단체의 3개월 이내 프로젝트 지원		37	183,839,603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A 지원사업	공익단체의 3년 이내 신규/연속 프로젝트 지원		13	383,405,090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B 지원사업	공익단체의 1년 이내 프로젝트 지원		14	218,721,22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B 특별 지원사업	공익단체 활동가네트워크 지원		2	23,782,302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공익단체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지원	16		84,586,751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공익단체 사무 및 활동 기자재 지원		23	101,378,657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자녀 보육비 지원사업	공익단체 활동가 자녀 보육비 지원			-394,500
풍력공로자 지원사업	풍력발전공로자시상 지원	2		10,000,000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지원		1	6,678,018
공익활동 지원	고유목적사업 인건비			222,939,947
공익활동 지원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진행비			122,108,180
소계		18	94	1,591,909,643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개인	단체	지원금액
청소년 자발적 여흥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떠나는 여흥프로젝트 지원	115	15	135,219,9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회문화활동 프로젝트 지원	183	10	23,031,936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사업	아동청소년의 특기적성과 재능계발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656	50	176,067,920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아동청소년의 문화체험활동 지원	1,056	50	141,890,413
사각지대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거리청소년 위기 지원사업		2	57,843,815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고등학생 전학년 교육비 지원	97	1	224,783,575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	51	1	517,060,140
성적우수 대학생 자기계발 프로젝트 지원사업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자기계발 프로젝트 지원	3		14,407,00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500	1	224,005,053
사설퇴소 및 위탁종결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설퇴소 및 위탁종결대상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110	1	400,996,700
하라기금 지정기탁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	3,600,00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청소년과 함께 진로교육 로드맵 만들기 지원		1	127,003,140
서장석 리더십프로그램 지원사업	경기고등학교 경기창의인재아카데미 및 상설 동아리 활동 지원	128	1	25,100,000
아동청소년 지원	고유목적사업 인건비			222,939,947
아동청소년 지원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진행비			122,108,180
소계		2,899	134	2,416,057,735

사회적약자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개인	단체	지원금액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생계비 지원	107	1	250,042,407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보조기구 필요 장애아동에게 기립 및 보행보조기구 맞춤 지원	214	8	425,314,304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근로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197	1	164,192,374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낙상 취약 노인에게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	211	1	211,490,613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실질적소년소녀가정에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155	1	54,314,611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이주아동 보육시설 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수행		2	289,664,813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사업	이른둥이 입원 및 재활 치료비 지원, 사회인식개선 캠페인	376		708,937,037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사업 - 현물	이른둥이 가정 보육 현물지원	60		993,000

사업명	지원내용	개인	단체	지원금액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사업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주 창업교육지원,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 창업 후 사후관리 지원	1,154	4	563,243,956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사업 - 현물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주 창업교육지원 및 창업 후 사후관리 지원	303		4,494,738
어르신 난방비 지원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난방비 지원		1	99,000
나눔천사를위한이창식기금 지원사업	故 이창식 기부자 유자녀생계비 지원	1		6,926,402
한국회귀난치성질환연합회 지원사업	회귀난치성질환자 멘토링 파티 및 의료비 지원사업			11,000
범죄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범죄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게 생계보조비 지원	16		24,000,000
현대자동차 지정기탁사업	해고노동자 심리정서 지원 및 자녀들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지원		1	11,000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	장애, 비장애아동이 함께 뛰놀 수 있는 놀이터 건립 사업		1	9,162,400
환경미화원 지원사업	환경미화원 생계, 의료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	128	1	-5,331,600
홀로사는 어르신 여름나기 지원사업	저소득 독거 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			22,000
<노란봉투 캠페인> 지원사업	손해배상 판결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해고노동자들과 가족의 생계 및 의료비 긴급지원, 법률 개선 활동 지원		1	-10,303,165
<기억0416 캠페인> 지원사업	416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참사 기록작업 지원		3	121,968,850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공익제보자에게 생계비, 법률상담비,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15	4	200,100,000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월5만 원 이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1회 지원으로 건강권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73	2	218,962,300
기타 지원 - 현물	홍삼, 유산균 제제와 홍삼 마스크팩 총 96개		4	13,235,690
기타 지원 - 현물	다빈치 코텍스 전시회 티켓 2,600장		87	40,192,760
사회적약자 지원	고유목적사업 인건비			222,939,948
사회적약자 지원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진행비			122,108,180
소계		3,010	123	3,636,792,618

기부문화 확산

사업명	지원내용	개인	단체	지원금액
기빙코리아	기빙인덱스(개인기부지수) 발표 및 기부문화 심포지엄 개최	연구 2건 행사 1건 (참여자 151명)		54,900,860
기부문화 기획연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발표행사	연구 3건 행사 1건 (참여자 47명)		16,641,825
기부문화 섹박사논문 지원사업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섹박사 연구논문지원	연구 6건		5,692,000
기부문화연구소	대한민국의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전문연구소 운영 및 연구 진행			11,437,540
기부문화총서	비영리 부문 경영, 모금 및 운영전략에 관한 전문 서적 발간	도서 2권 행사 6건 (참여자 641명)		32,670,766
기부문화도서관	국내 최초의 기부문화 전문 도서관 운영	도서 293권 대출자 778명	1개 도서관	2,792,070
나눔교육 밴드	나눔의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637명	15개 단체 7개 학교	111,532,477
기부문화 확산	고유목적사업 인건비			222,939,947
기부문화 확산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진행비			122,108,180
소계				580,715,665

대여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개인	단체	지원금액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사업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금 대여	33		1,230,941,430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이주아동 보육시설 모델링을 위한 공간 무상대여		1	406,843,920
소계		33	1	1,637,785,350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자녀 보육비 지원사업, 환경미화원 지원사업, <노란봉투 캠페인> 지원사업의 경우 전차년도 사업들의 환급으로 인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정

아름다운재단은 시민, 기업 기부를 통해 '목적형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금은 공익사업에 사용되며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에서는 기부금 수입, 목적사업을 위한 지출 외에도 아름다운재단 전체 기금운영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새롭게 조성된 기부금은 6,827,656,705원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금액
기초현금	전년도에서 이월된 현금성 자산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 예금 등으로 관리됨. 전년도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과 일치함	3,691,423,370
사업활동 수입	① 기부금 신규 기금 생성, 경기 및 일시기부, 현물기부, 운영후원금 등 시민과 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된 기금. 기부금과 현물기부를 포함한 수입	6,827,656,705
	② 사업수입 등 나눔교육 해외연수 참가, 연구사업 및 연구발표 참가, 총서 판매 등을 통한 수입	11,181,980
	③ 사업비 회수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 대여금 및 보증금 상환에 따른 수입	913,571,240
기금운용* 수입	④ 금융상품 회수 경기예금 등 만기 도래로 인한 회수에 따른 수입	10,098,173,694
	⑤ 주식/채권 등 처분 매도 가능 증권 등 처분 처분에 따른 수입	13,042,855,748
	⑥ 이자수입 등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한 금융 이자와 배당금, 희망가계 대여 이자 등을 포함한 수입	1,608,950,761
수입 관련 자산부채의 현금유출입 조정**		307,869,429
수입 합계		36,501,682,927

* 기금은예금, 주식·채권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관리됨

** 수입/지출 관련 자산부채의 현금유출입 조정 : 수입지출 총괄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운영성과표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이 시작되는데 재무제표 작성기준(회계처리기준)과 수입 지출 총괄표 작성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항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등의 관련 수익·비용은 현금 유출입이 없더라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운영성과표상 수익·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지출 총괄표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현금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는 수익·비용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수입지출 현황표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며, 당해연도 현금유입액을 의미하는 수입 총합계와 현금유출액을 의미하는 지출 총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8,225,475,661원이 쓰였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금액
사업활동 지출	① 목적사업비 <small>고유목적사업과 진행을 위한 지출 ※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은 22p '2016 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small>	8,225,475,661
	② 일반관리비 등 <small>기금 조성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스템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운영에 따른 지출</small>	2,105,824,821
	③ 사업비대여 <small>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 대여금 지출</small>	1,230,941,430
	④ 재단 운영자산 취득 등 <small>부동산 무상대여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매수, 재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비품 등 자산 취득에 따른 지출</small>	431,800,920
기금운용 지출	⑤ 금융상품 예치 <small>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정기 예금 등 금융상품 예치에 따른 지출</small>	6,089,389,588
	⑥ 주식/채권 취득 <small>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매도 가능 증권 등 채권 취득에 따른 지출</small>	14,039,654,465
지출 관련 자산부채의 현금유출입 조정**		(-) 329,082,772
기말현금	당해연도 수입 총 금액에서 상기 지출항목의 집행 후 잔액으로 다음연도 기초현금으로 이월됨. 당기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과 일치함	4,707,678,814
지출 합계		36,501,682,927

재무제표, 운영성과표 등 상세한 재정 자료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재단소개-신뢰와 투명성-감사보고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7 아름다운재단 기금 및 지원 영역 개편

우리 사회 '변화의 시나리오'를 써나갑니다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 특정 개인이나 기업, 종교의 영향 없이 시민들의 참여로 설립되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익재단, 시민의 공적 자산으로서 기부자님과 함께 우리 사회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2017년 기금 및 지원 영역 개편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적 역할을 되새김과 동시에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변화의 초석을 다지는 첫걸음입니다.



교육, 환경, 건강, 주거, 노동, 안전, 문화,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8개 기금 - 지원 영역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을 펼칩니다

150여 개로 분산된 기금을 8개의 영역기금으로 개편했습니다. 유사한 영역으로 통합·확장된 기금은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는 기부자님들의 기부금을 합쳐 긴급하고 기초적인 지원부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까지 폭넓게 사용되며, 8개 영역 내 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사회적약자, 아동청소년, 공익활동 등 3개 지원 영역과 연구교육사업을 8개 영역으로 개편했습니다. 교육, 환경, 건강, 주거, 노동, 안전, 문화,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등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에 기반한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영역별 사업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 영역 내 지원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작은 지원으로 더욱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긴급 지원부터 정책 개선까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교육 배움에 문턱도 한계도 없는 사회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무장애 통합놀이터 지원사업
- 서강석 리더십프로그램 지원사업
-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환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전환사회

- 풍력공로자 지원사업



건강 가난이 병이 되지 않는 안녕한 사회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이른둥이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주거 집이 공공적 권리로 인식되는 사회

-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시설토소 및 위탁종결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노동 하고 싶은 일 마음껏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회

-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사업



안전 누구나 안심, 어디서나 안전한 사회

- 범죄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 사각지대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 유기동물 보호활동 지원사업
- 하라기금 지정기탁사업
-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문화 문화와 여가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사회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시민의 삶과 사회의 질을 높인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
- 기부문화 기획연구
- 기부문화 도서지원
- 기부문화연구 석박사논문 지원사업
- 기부문화총서
- 기빙코리아
- 나눔교육
-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A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B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해외연수부문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나눔가계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 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성과, 운영 및 재정 정보를 성실히 담았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기부자님들의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의 쓰임을 꼼꼼히 기록하였습니다.
정량적 성과 수치, 주요 활동 및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지원사업 영역 전반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개선점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도 담았습니다.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재정 현황을 쉽고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각 항목별 세부 설명을
구성했습니다. 기금 및 지원 영역 개편 등 아름다운재단의 발전 계획과 실행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나눔가계부의 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부자님들께 꼭 보고드려야 할 정보를 중심으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재단의 더 많은 이야기는 공식블로그(blog.beautifulfund.org),
공식페이스북 facebook.com/beautifulfun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세상을 빛내주신 기부자님 한분 한분을 가슴에 새기며
2017년에도 더욱 풍성하고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시는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나눔가계부>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에 담고자 하는 이야기, 바라는 점 등을 말씀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모아 더욱 알찬 나눔가계부를 만들겠습니다.

◆ 나눔가계부 구독자 의견 작성하기

당신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결혼, 탄생, 첫돌, 생일, 나만의 기념일
삶의 다양한 순간을 나눔으로 더 특별하게 기억하는 방법
생애주기기부 <아름다운Day>와 함께하세요!



아름다운Day에 참여하시면
기념일 나눔을 특별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감사선물을 드립니다.



**아름다운Day
기부 감사선물**
아름다운Day에
참여한 모든 기부자님께
기념일별 나눔자석,
기부증서를 드립니다.



**돌기념 기부
감사선물**
바로로 나눔동화,
돌잔치용 테이블보너,
트레이메트 등 돌기념 기부
감사선물이 제공됩니다.

* 다양한 감사선물의 상세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나눔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은 눈덩이 같아요
처음엔 작은 것 같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주위를 감동시켜 변화를 만들어내느라 땀이 납니다

이 시대를 같이 사는 나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작은 체온

나눔은 꽃을 건네는 일
꽃을 건네받은 사람에게도
건넨 사람에게도 향기와
기쁨이 남기 때문이죠

일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드는 나눔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하는 나눔

나눔은 일상이고 행복

더 많이 도와주지 못했다는 마음 그래서 나눔은 미안한 마음

가장 행복한 날에 생각하게 되는 것들

나눔은 세상에 고맙다 말하는 것

재산을 축적하기보다 나눔을 저축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인생의 이함은 나눔

나눌 때마다 마음으로
돌려받게 돼요
이 마음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시작이 어렵지만
시작하면 좋은 습관

나눔이란 누구를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작은 시작

제 이름을 '나눔'이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나눔은 어렵고 힘든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나눔이라 생각해요

나눔의 씨앗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나눔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기
Tel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나눔으로 답하는 청년들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장학생



가을빛이 완연한 9월, 11명의 학생들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생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을 찾았다. 이들의 방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김군자 할머니를 뵙기 위한 것. 이들은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장학생들이다. 17세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갓은 고난을 겪으신 김군자 할머니는 2000년 8월 평생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 하셨다. 아름다운재단 1호 기금인 '김군자할머니기금'에는 시민들의 나눔이 더해졌고, 지금까지 44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학업의 꿈을 이어갔다.

김군자 할머니와 장학생들이 응기종기 모여 앉자 세 평 남짓한 작은 방이 온기로 꽉 채워졌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잖아." 하트모양 종이에 장학생들이 쓴 편지를 모아 예쁘게 코팅해서 드리자 할머니는 멋진 포즈를 지으신다. 유심히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한껏 높이는 장학생들의 답소가 끊이지 않았다.

"저번 설에는 대학 나온 아름다운재단 학생들 셋이 왔어. 마후라랑 잠바를 사왔어. 잠바는 작아서 다른 사람 줬지. 한 사람은 결혼했다고 부인하고 같이 왔어." 자식 같은 장학생들은 할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다.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듯 학생들은 더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자신이 받은 감사한 마음을 더 나누겠다고 답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기금 덕분에 배우고 싶은 과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행복하게 학교생활 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픈 이들에게 마음의 꽃을 건네다

최은경 아나운서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건강한 나눔을 널리 알리는 취지의 캠페인 행사에 최은경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나섰다. 최은경 아나운서의 기부 실천은 정말이지 다양하다. 광고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는가 하면, 아름다운재단 행사 사회나 홍보 내레이션 참여 등 재능기부도 아끼지 않는다. 가족기금인 '발리네집기금'의 출연자이기도 하다.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의 아픔을 알게 됐요.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이 바로 그 예인데, 생활을 꾸리는 것도 벅찬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데 제도적으로 도움 방법이 없다고 하니 이 캠페인이야말로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했죠."

최은경 아나운서에게 나눔의 의미를 묻자 '꽃을 건네는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꽃을 건네받은 사람에게도, 건넨 사람에게도 향기와 기쁨이 남기 때문이죠. 일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드는 나눔에 여러분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기부 문화에 기부하다

영동일고등학교 광고동아리 CAM

올해도 아름다운재단을 찾은 영동일고 광고동아리 CAM. 4년 전, 학교 축제에서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한 것이 시작이었다. "동아리 전통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이어질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름다운재단에 와서 보니 삶에서 꼭 돈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을 하며 사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기부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나눔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12명이 머리를 맞대고 선택한 기부 영역은 '나눔문화1%기금'이다. 당장 누군가를 돕는 것만큼이나 나눔의 일상화를 위한 바탕을 고민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나누는 마음도 훌쩍 자라 있었다.



행운의 숫자 희망가게 300호점

임은정 창업주

"굉장히 의미 있는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좋은 일을 해나가는 데 에너지를 더해줄 것 같아요."

지난 2004년 1호점 '정든찌개' 개업 이후 12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가게'가 300호점을 돌파했다. 그 주인공은 임은정 창업주다.

임은정 창업주는 녹즙 배달과 학원 강사 일을 병행하며 남매를 길렀다. 나이가 들면서 학원 강사 일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희망가게를 만나 창업을 결심하고 부산 기장군에 녹즙 홈배달 가맹점을 열었다.

"남다른 책임감을 느껴요. 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어요. 제 꿈은 저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넉넉하지 않지만 몇 곳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희망가게가 잘 돼서 기부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분들을 돕고 싶어요."

꾸준한 재활치료가 부른 기적

최주호 이른둥이



9개월 만에 태어난 주호.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폐렴으로 쌍둥이 동생을 잃었다. 주호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뇌손상으로 뇌병변 장애를 얻었다.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복지관 통합준비교실 수업까지 쉽지 않았다. 그리고 4살이 되던 해, 주호는 처음으로 두 발로 섰다. 차차 걷고 말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장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 주호의 병원비는 또 다른 어려움이였다. 아빠의 소득으로 사회복지관, 구청 등의 지원사업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선 주호네 가족에게 다 숨이착은숨결살리기의 재활치료비 지원은 무엇보다 큰 힘이였다.

"재활 치료하면 좋아지겠지 생각하면서 힘을 냈어요. 실제로 좋아졌고요. 엄마들은 다 그럴 거예요. 포기하는 안 해요." 7살 주호는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간다. 어려운 도전이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호와 엄마는 힘을 합쳐 차근차근 산을 넘어갈 것이다.

살아있는 역사와 마주하기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모듬 애슬노리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하는 근대로의 여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역사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호남, 충청의 쌀이 군산항을 통해 일본에 강제 수출됐던 만큼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오롯한 군산, 국제보상운동을 필두로 치열한 독립운동의 현장을 더듬을 수 있는 대구를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다. 그리고 두 도시와의 첫 만남은 언제나 평화의 소녀상이었다.

"솔직히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어요.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을 테고요. 아픈 역사라도 흔적과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역사의 현장을 밀착 경험함으로써 치욕도, 슬픔도, 자긍심도 '오늘, 우리의 일'로 가까이 느끼고자 했던 여행의 목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거리청소년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질문들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포텐

전국에 단 3곳(의정부, 부산, 청주)뿐인 의료특화형 청소년 쉼터 중 하나인 포텐은 2015년 사각지대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선정으로 연속 지원을 받고 있다. '거리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문진표 개발'은 3년 계획으로 진행 되는 사업이다.

정밀한 진료와 집중 치료가 필요해 병원에 가야할 때 미리 작성한 문진표를 담당자에게 보여준다면 건강 문제를 빠르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 의사와 직접 대면 시 받게 되는 민감한 질문들로부터, 길어지는 문진으로 인한 지체로부터 아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는 것이다.

포텐을 찾는 많은 아이들은 아픔을 그저 참는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고심하여 마음을 담은 질문으로 왜 아프는지 알고 싶어 하는 어른들은 오늘도 거리의 아이들을 찾아 나선다.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참여하는 공간

옥천순환경제공동체

'공공 투 공공(空空 to 公共) - 공유공간 소문내기 프로젝트'는 옥천 주민들이 함께 조성한 '옥천사람들 공유공간'의 개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홍보 활동과 함께, 타 지역의 주민 공유공간 사례 공유 및 토론, 주변 꽃밭 가꾸기, 바느질·수제맥주·옥천콜라푸드·목공제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유공간에서 이렇게 재밌는 활동들을 벌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긴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엇보다 모르면 주민들이 서로 알게 되고 새로운 관계망을 자연스럽게 만들었죠. 공동체가 그 관계망을 확장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을 발견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 기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